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7. No. 6, pp. 409-416, 2019

ISSN 1738-1916
https://doi.org/10.14400/JDC.2019.17.6.409

원예활동프로그램이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융합효과

하윤주[1], 김은아[2*]
[1]호남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2]동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Convergence Effect of Horticulture Activity Program on Self-esteem and School Life Adapt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

Yoon-Joo Ha[1], Eun-A Kim[2*]
[1]Assistance Professor, Dept. of Nursing Science, Honam University
[2]Assistance Professor, Dept of Nursing Science, Dongshi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원예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유사실험 연구로서, 대상자는 실험군 39명, 대조군 36명 이었다. 프로그램은 2017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8회기를 시행하고, 프로그램 전후에 설문을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Ver.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χ^2-test, Fisher's exact test, t-test, paired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원예활동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의 자아존중감(t=2.41, p=.021)과 학교생활적응(t=3.85, p=.000)점수는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원예활동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응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제어 : 원예, 적응, 자아존중감, 다문화청소년, 융합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horticulture activity program on self-esteem and school life adapt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test design with experimental group (n=39) and control group (n=36) was used. The program was conducted from Jan. 2 to Feb. 28, 2017, and the questionnaire was conducted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SPSS(Ver, 24.0), conducting χ^2-test, Fisher's exact test, t-test, paired t-tes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 in self-esteem(t=2.41, p=.021) and school life adaptation(t=3.85, p=.000) by difference between a pretest and a posttest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ared to that in the control group. Therefore, the horticulture activity program for multicultural adolescent have a significant effect for better performance of self-esteem and school life adaptation. Also,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gram used for improving adaptability of multicultural adolescent.

Key Words : Horticulture, Adaptation, Self-esteem, Multicultural adolescent, Convergence

*Corresponding Author : Eun-A Kim(eakim@dsu.ac.kr)
Received April 9, 2019 Revised May 10, 2019
Accepted June 20, 2019 Published June 28, 2019

1. 서론

세계의 지구촌화에 발맞추어 최근 우리사회에 각기 다른 인종적,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가진 이주외국인과 국제결혼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다문화 가정 초·중·고교 재학 자녀는 9만명 이상으로 다문화 학생이 전체 초·중·고교 학생의 1.68%에 달하고 있으며[1], 특히 2014년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0.9%로 일반 가정 자녀의 학업중단율 0.2%와 비교해 볼 때 4.5배나 확연히 높게 집계되는 것으로 보고된다[2]. 이러한 추세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언어능력 부족, 학업성적 부진 및 차별 등으로 인한 학교 부적응 문제를 사려 깊게 고려해야 하며[3,4], 서로 다른 민족적, 사회문화적, 교육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5].

다문화 가정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총칭하는 용어로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 학생이라 함은 이주민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초혼 및 재혼을 통한 자녀, 불법체류자 자녀, 외국인 근로자 자녀, 새터민 자녀 등을 말한다[6]. 다양한 다문화 가정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대부분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다문화를 통한 재혼가정 자녀의 경우 양육자 부모의 원활하지 못한 한국어 능력과 자신이 겪고 있는 이중문화에 대한 사회·심리적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서 자아정체감 형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6].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과 그 자녀들을 고려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문화정책들이 자리잡아가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감하는 주변 상황은 아직도 다양한 문화집단에 대한 열린 사고의 한계로 인해 다문화 학생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언어능력 부족, 정체성의 혼란, 집단따돌림 소위 말하는 “왕따” 경험 등으로 인해 자아존중감 상실 및 학교생활부적응[7,8]의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다.

개인의 자아정체감은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데 안정된 자아개념을 가진 사람은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갖으며 불안정한 자아개념을 갖은 사람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하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 한다[9]. 또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갖은 사람은 타인과 원활한 상호작용과 목적지향적 행동특성을 보이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학업성취도가 높고, 또래집단과의 활동에서 성공적인 상호작용과 함께 공동체 생활에서 매우 협조적인 성향을 보여,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밝혀졌다[10]. 또한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학습동기가 높으며[11], 학습동기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한다고 하였다[12].

다문화 가정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 종단적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학생의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학교생활적응 또한 다음 시점의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적 관계를 맺고 있음이 밝혀졌다[13].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향상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다문화 학생의 적응을 위해서는 두 변수 모두를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이 더욱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다문화 가정의 부모 및 자녀들을 대상으로 미술치료[14], 예술체험교육[15], 원예프로그램[16] 등을 이용한 다양한 활동 중심의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 원예를 이용한 프로그램은 언어적 지지에만 의존하지 않고,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이루어 낼 수 있어 한국어에 서툰 학생이 활동만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기에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기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살아있으며 본능적으로 인간에게 친숙한 식물을 이용한 원예활동은 신체적·정신적·심리적 건강을 도모하고 건강유지 및 활력을 증진시키는 일련의 치료법으로 많이 이용된다[17]. 즉 식물에 포함된 독특한 향기와 치료성분은 뇌의 변연계를 통해 정서 상태에 영향을 미치며 불안과 스트레스 해소, 피로회복, 면역증진 등에 효능을 나타내어 병원환자, 일반인, 치매노인, 학습에 문제 있는 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군을 통한 연구가 실행되어 왔다[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정신적 성장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기 다문화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예활동을 적용한 연구에는 한계가 있으나 청소년[16], 지역아동센터 아동[19] 및 저소득층 아동[20] 등을 대상으로 한 원예활동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기존 연구들을 근거로 정서적인 안정이 중요한 다문화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원예활동 또한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서구에서 급격히 부각되는 다문화사회의 위기들 특히 이민 2세대, 3세대의 사회 부적응 문제를 고려한다면[2], 다문화 자녀들의 학교부적응 문제는 결과적으로

추후 우리 사회의 부적응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높이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임을 고심해야 하며, 또한 다문화청소년들이 최종적으로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융화되기 위한 다문화대상 정책 또한 필요함을 시사한다. 위와 같이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에게 친숙한 식물을 활용하여 정서적·심리적인 안정도모를 기대할 수 있는 원예활동프로그램은 다문화학생이 스스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새로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융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예활동프로그램이 다문화청소년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들의 학교 및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G시의 S학교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원예활동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설계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유사실험 연구이다(Table 1 참고).

Table 1. Research Design (N=75)

Group	Pre test	Treatment	Post test
Exp.	Ye[1]	X	Ye2
Cont.	Ye[1]		Ye2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X: horticultural activity program
Y: self esteem, school adjustment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에 위치한 S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 중도입국 청소년이다. 본 연구자는 2016년 10월 중 S학교 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학교의 절차에 따라 허락을 득하였다. S학교는 국제결혼가정, 외국인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및 새터민 자녀 등의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로, 중도입국 청소년은 결혼이민자 중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이전 결혼에 의한 자녀를 데려온 경우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14-18세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목적과 연구진행절차, 연구취지를 설명한 후 이를 이해하고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로서 그 부모에게 동의가 구해진 75명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은 한국에 입국한지 최소 5개월에서 최대 1년 8개월이 되었으며 출신국은 4개국(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고)으로 구성되었다. 표집방법은 대상자들의 한국 입국시기와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실험군 39명, 대조군 36명으로 배분하여 편의표집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대상자와 부모들에게 연구목적과 연구진행 절차에 대해 설명한 뒤 원하지 않는 경우에 참여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주고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을 약속하고, 이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일정장소로 이동하였다. 프로그램 활동장소는 S학교에서 교과 외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하는 장소로 대상자의 이동이 용이하고 공간에 여유가 있었으며, 채광이 밝고 다른 소음이나 방해가 없는 곳으로 원예활동에 적합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 보조 진행자 3명을 대상으로 활동방법 및 활동 시 학생 지지 방법, 프로그램 진행 시 주의 사항 익히기, 연구척도에 대한 이해 등 3회에 걸친 프로그램 진행 관련 교육을 실시한 후 프로그램을 보조하도록 하였다. 2017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각 회당 2~3 시간씩 총 8회의 원예활동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로 번역한 질문지를 만들어 시행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실시하였다. 실험군은 원예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 동의서를 작성한 날 사전 질문지를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시 한 직후 사후 질문지를 시행하였다. 또한 대조군에게는 원예활동프로그램 대신 S학교에서 방학 중 시행되는 기존 한국어교육 위주의 일반적인 교육을 적용하였고, 설문지 시행은 실험군과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자아존중감

Rosenberg[21]가 개발한 도구를 Jeon[22]이 우리나라 문화에 맞도록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측정도구(Self Esteem Scale)는 자기존중정도와 수용정도를 측정하가 위해 고안된 것으로 총 10문항이다. 도구의 구성은 긍정적인 문항이 5개, 부정적인 문항이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Likert식 4점 척도로서 긍정적인 문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이며 부정적인 문항에서는 점수를 역환산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Jeon[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5,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84이었다.

2.3.2 학교생활적응

Lim[23]이 개발하고 Kim[24]이 수정·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도구는 4개 하위영역을 측정한 것으로 문항 수는 교사관계 4문항, 교우관계 4문항, 학교수업 4문항, 학교규칙 4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되어있다. 각 문항은 학교생활적응 정도에 따라 분석하는 것으로 Likert식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을 부여하였으며 최저 16점에서 최고 64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Kim[2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9,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5이었다.

2.3.3 프로그램 내용

본 연구에서 시행한 원예활동프로그램은 여러 국가에서 이주해온 학생을 감안하여 내용을 충실하게 하면서 귀로 듣는 강의보다는 행동하면서 그룹 내 쉽게 동요될 수 있는 작업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소요시간, 활동명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Table 2 참고).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컴퓨터에 입력한 후 SPSS(Ver.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로,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동질성 검증은 χ^2-test, Fisher's exact test, t-test로, 원예활동프로그램 실시 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효과를 검증하기위해 t-test와, paired t-test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참고). 일반적 특성에서 남학생 42명 여학생 33명 이었으며, 연령은 18세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14세 21명, 17세 12명, 16세 10명, 15세 8명 이었다.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으로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어머니 8명, 아버지 2명, 기타 12명 이었으며, 종교는 기독교가 68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들의 한국어 실력은 '어느정도 하는 편'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다'가 21명, '잘한다'가 17명 이었으며, 부모의 학력수준은 아버지의 56명, 어머니의 51명이 고졸이상 이었다.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결과 모든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은 동질 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Table 2. Horticultural Activity Program

Step	Session	Time	Objective	Contents
Introduction Step	1	2 Hours	·Making herb skin ·Orientation	·Seeking for the need ·Having interest and expectation ·Getting into the group and orientation
Progressing Step	2	2 Hours	·Drinking herb tea ·Learning hydroponics	·Relaxation through the five senses ·Posing rest on their mind
	3	3 Hours	·Making multi-plant yard ·Self coaching1- find identity	·Valuable life and awareness of the living -Looking for the identity, who am I? -Understanding people: differences between the unlike point and the wrong point
	4	2 Hours	·Making soap flower	·Have relationship with other people -Enhancement of sociality and mutual interchange through the completion of the mutual work
	5	2 Hours	·Making flower cake	·Have relationship with other people -Enhancement of mutual action with other people by co-working and improvement of the self expression
	6	3 Hours	·Making kosage ·Self coaching 2: sharing ideas of the future forms in korean society	·Have social relationship -The effects of the positive energy on their life -trip to the future
	7	2 Hours	·Making invitation with barbola card	·Have social relationship ·Homework presentation and sharing experiences -Discovery of self-declaration supporting life balance
Finish Step	8	2 Hours	·Finish up the gardening activity, invitation to show the exhibition	·Having fun with others -Watching works, sharing experiences with the invited people

Table 3. Homogeneity Tes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N=75)

Characteristics	Category	n(%)	Exp. (n=39)	Cont. (n=36)	χ^2†	p
			n	n		
Gender	Male	42(56.0%)	22	20	.074	.941
	Female	33(44.0%)	17	16		
Age	14	21(28.0%)	11	10	.860	.807
	15	8(10.6%)	5	3		
	16	10(13.3%)	5	5		
	17	12(17.1%)	5	7		
	18	24(32.0%)	13	11		
Duration of stay in Korea (month)	Below6	5(.6.7%)	1	4	.726	.958
	6-12	46(61.3%)	28	18		
	12-18	24(32.0%)	10	14		
Living with	Parents	53(70.7%)	28	25	.194	.997
	Father	2(2.7%)	1	1		
	Mother	8(10.6%)	4	4		
	Other	12(16.0%)	6	6		
Religion	Christian	68(90.6%)	36	32	.562	.799
	Other	4(5.4%)	2	2		
	None	3(4.0%)	1	2		
Korean language skill	Can't speak	9(12.0%)	4	5	-.176	.992
	Speak a little	24(32.0%)	13	11		
	Normal	21(28.0%)	11	10		
	Good speak	17(22.7%)	9	8		
	Very good speak	4(5.3%)	2	2		
Educational background(Father)	Below elementary school	4(5.3%)	2	2	-.637	.903
	Middle school	15(20.0%)	7	8		
	High school	41(54.7%)	21	20		
	Above college	15(20.0%)	9	6		
Educational background (Mother)	Below elementary school	5(6.7%)	2	3	-1.070	.728
	Middle school	19(25.3%)	9	10		
	High school	37(49.3%)	19	18		
	Above college	14(18.7%)	9	5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Fisher's exact test.

3.2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증

원예활동프로그램 전·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동질성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참고). 자아존중감은 실험군 평균 3.45점(±.58), 대조군은 3.63점(±.51)이었고(t=-1.377, p=.501), 학교생활적응은 실험군 평균 3.58점(±.70), 대조군은 평균 3.81점(±.88)이었다(t=-1.384, p=.845). 따라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은 동질하였다.

Table 4. Homogeneity Test for Research Variables (N=75)

Variables	Exp.(n=39)	Con.(n=36)	t	p
	Mean±SD	Mean±SD		
Self Esteem	3.45±.58	3.63±.51	-1.377	.501
School Adjustment	3.58±.70	3.81±.88	-1.384	.845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3.3 원예활동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원예활동프로그램 전·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아존중감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참고). 실험군에서는 실험 전 평균 3.45점(±.58)에서 실험 후 평균 3.74(±.47)점으로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t=-2.41, p<.05), 대조군에서는 실험 전 평균 3.63점(±.51)에서 실험 후 평균 3.52점(±.63)으로 감소하였지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81, p>.05). 사전-사후 차이값에 대한 두 집단 간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41, p<.05).

원예활동프로그램 전·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학교생활적응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실험군에서는 실험 전 평균 3.58점(±.70)에서 실험 후 평균 4.01점(±.55)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t=6.10, p<.05), 대조군에서는 실험 전 평균 3.81점(±.88)에서 실험 후 평균 3.78점(±.88)으로 감소하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18, p>.05). 사전-사후 차이값에 대한 두 집단 간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3.85, p<.001).

4. 논의

본 연구는 원예활동프로그램이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

Table 5. Effects of Horticulture Program on Self Esteem and School Adjustment between Experimental and Cotrol Group (N=75)

Variables	Groups	Pretest(A)	Posttest(B)	Difference(B−A)	Paired t−test†		t−test‡	
		Mean±SD	Mean±SD	Mean±SD	t	p	t	p
Self Esteem	Exp.(n=39)	3.45±.58	3.74±.47	.29±.76	−2.41	.021	2.41	.021
	Cont.(n=36)	3.63±.51	3.52±.63	.46±.74	.81	.426		
School Adjustment	Exp.(n=39)	3.58±.70	4.01±.55	−.10±.78	6.10	.016	3.85	.000
	Cont.(n=36)	3.81±.88	3.78±.88	−.03±1.17	.18	.860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Tested for comparison between pretest & posttest each group; ‡Tested for comparison of differences of pretest & posttest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여 시도되었다. 원예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여 원예활동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인 프로그램임을 확인하였다.

다문화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예활동프로그램을 시행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Gwak[16]의 연구에서 원예활동이 자아정체성과 공동체의식 향상에 효과적인 결과를 보였고, Kim[25]의 연구에서는 자존감향상에 의미가 있었으며, Kim[26]의 연구에서 사회성 발달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어 원예활동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은 자신감과 정서적 안정을 획득하여, 스스로를 수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해 주었다.

그 밖에 대상자는 비록 다문화가 아니지만 원예활동과 관련된 여러 연구결과에서 원예활동프로그램이 자존감 및 개인의 자아상 향상에 영향을 주었던 연구들을 비교해보며 다음과 같다. 지체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원예활동을 적용한 Yang과 Kim[27]의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저소득 가정 아동[28] 및 공업고등학교 학교생활 부적응 청소년을 대상[29]에서도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다소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정리하면 원예활동프로그램은 긍정적 자아형성에 도움을 주어 자아존중감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재임이 확인되었고, 인간의 전 발달 단계 중에서 신체적·심리적·정서적·사회적으로 가장 많은 변화를 겪는 청소년시기에 이주해온 다문화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원예활동과 학교생활적응 및 만족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과 비교해 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우관계와 사회성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30,31].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해주었다[32]. 이러한 연구결과는 원예활동이 학생들의 자존감과 사회성을 함양시킴으로써 친구들과 동등한 관계 및 공감대 형성을 맺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능력도 향상 되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혼 등의 가족해체로 인해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거나 정체성 갈등을 경험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심리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 원예프로그램이 학교생활적응력 향상에 유의한 영향이 있었던 연구는[32,33] 원예를 매개로 심리적 혼란 및 갈등을 해소시켜 학교적응력을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원예관련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원예관련 활동이 자연과 함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과 정서적인 친숙함으로 쉽게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작품을 완성시키는 성취감을 맛볼 수 있게 하고 스스로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다문화권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 하는 경우에는 한국어에 서툰 학생들에게 교육이나, 강의를 이용한 프로그램보다는 활동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원예를 이용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이 더 의의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실시한 다문화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원예활동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바 이중문화로 인한 적응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청소년들이 달라진 환경에서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적응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대상자 연령의 폭이 다소 넓고, 비교적 다양한 국적을 가진 학생들로 진행되어 특정집단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현재까지는 한국에서 태

어난 다문화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다수인데 반해 본 연구는 다문화학생들 중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이전 결혼에 의해 한국에 데려온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원예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원예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으며, 연구결과 원예활동프로그램이 대상자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본 원예활동프로그램은 귀로 듣는 강의보다는 행동하면서 그룹 내 쉽게 동요될 수 있는 작업내용으로 구성되어, 언어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상자와의 상호작용 활동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자료수집 시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로 번역한 질문지를 만들어 시행하였으나 대상자의 이주년도가 몇 개월 되지 않아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S학교 선생님의 통역으로 설문에 참여하도록 했지만 설문지의 정확한 의미전달에는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둘째, 본 연구는 일부 다문화청소년 대상자로 이루어졌으므로 모든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적응만족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지역사회의 다문화청소년들을 위한 원예활동프로그램을 다문화 이주여성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적합하게 수정·적용하여 자존감 및 생활적응 향상을 위하여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1] Ministry of Education. (2015). Multicultural student education support plan. http://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39&lev=0&statusYN=C&s=moe&m=02&opType=N&boardSeq=58722

[2] B. H. Lee. (2017). *A study on supporting policies for preschool children in gyeonggi-do's multicultural family.* Gyeonggido : Gyeonggi Research Institution.

[3] M. K. Kim. (2018). A convergent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adolescents' mental health of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 189-197. DOI : 10.15207/JKCS.2018.9.1.189

[4] B. J. Jeon. (2012).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and acculturation stress on school adaptation of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0(11),* 29-38.

[5] Y. A. Jung. (2011). A study on the education model for information literacy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family childre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1),* 15-20.

[6] C. Y. Lee. (2008). *Saenalschool role of a multicultural society.* Jeollanamdo : Jeollanamdo Research Institute of Education and Science.

[7] H. S. Choi. (201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relationship with parents, self-esteem, and school life adjustment - focusing on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17(2),* 195-217,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8] H. J. Yun. (2017). A study on the structure between relationship with parents,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in multicultural families, *17(22),* 143-163,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9] J. J. Brownfain. (1952). Stability of the self-concept as a dimension of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7(3),* 597-606. DOI : 10.1037/h0058421

[10] Y. C. Kim & M. S. Jung. (2012).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social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3,* 51-70.

[11] Y. H. Park & H. Y. Kim. (2010). Effect of horticultural therapy on the self-efficacy and emotional intelligence of children in the child welfare institutions. *Korean Society for People, Plants and Environment, 13(2),* 7-11.

[12] M. H. Kim & J. H. Ha. (2008). The effects of academic motivation, study skill on academic achievement, school adjustment. *Child education, 17(2),* 33-48.

[13] J. Y. Yoon & E. J. Hur. (2009).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of the reciprocal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efficacy student's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in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3(6),* 775-798. DOI : 10.24159/joec.2017.23.6.775

[14] K. H. Kim & S. H. Chang. (2017). The effects of group art therapy on vocabulary ability and stres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 Korean Association for Multicultural Education, 10*(1), 29-48. DOI : 10.14328/mes.2017.3.31.29

[15] N. J. Park. (2017). The study on experiencing art program for multi-cultural youth-focus on the case study of experiencing art program for multi-cultural

youth at ansan community. *Korea Institute of Youth Facility & Environment, 15(4),* 231-239.

[16] H. R. Gwak. Y. J. Jang, J. N. Park & J. W. Choi. (2011). Effect on the identity, community spirit and horticultural education program framework for multicultural children. *Journal of People Plants and Environment, 14(6),* 347-356.

[17] M. H. Lee, K. W. Koh, M. S. Song, K. M. Woo & S. H. Jo. (2004). The effect of aroma therapy on depression and anxiety of chronic hemodialysis patients. *The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6(1),* 53-64.

[18] S. Y. Yun & H. Y. Kim. (2009). Effect of the horticultural therapy on hand function of demented elders. *Korean Journal of Horticultural Science & Technology, 27(4),* 673-677.

[19] M. S. Choi, N. S. Oh, H. S. Yoon & G. W. Cho. (2013. May) The effect of horticultural therapy program on the self-esteem improvement and school adaptive capacity of the children from community child center. *Society for People, Plants, And Environment, Conference,* (pp. 129-130). : Seoul.

[20] E. J. Yoon, M. H. Lee & Y. G. Yoo. (2010, October). Effects of horticultural therapy on the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in children of low income family. Society For People, Plants, And Environment, *Conference,* (pp. 135-136). : Seoul.

[21] M. Rosenberg.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DOI : 10.1515/9781400876136

[22] B. J. Jeon. (1974). Research about self conceptual measurement possibility. *Yonsei Collection of treatises, 11(1),* 107-130.

[23] J. S. Lim. (1993). *The relationships between dependency and school adjustment of childre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s thesis, Chungbuk.

[24] K. S. Kim. (2005). *The relationship of stress to school adjustment among elementary school health clinic users in the fifth and sixth yea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Gwangju.

[25] H, S. Kim, B. S. Kim, Y. J. Kim & J. R. Choi. (2017, June). The Effect of Horticultural Therapy on Self-esteem for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Society For People, Plants, And Environment Conference,* (pp. 81-81). : Seoul.

[26] S. H. Kim, A. N. Kim, H. J. Lee & W. K. Cho. (2010, October). The Effect of Horticultural Therapy on Improving Sociability And Self-esteem for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y. *Society For People, Plants, And Environment. Conference,* (pp. 115-116). : Seoul.

[27] M. H. Yang & H. J. Kim. (2010). Effect of Horticultural Activities on the Self-Esteem of Physically Disabled Children. *Korean Journa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53(*1), 105-121.
DOI : 10.20971/kcpmd.2010.53.1.105

[28] R. M. Seo, M. J. Lee & W. Oh. (2013). Effects of After-school Horticultural Activities on the Depression and Self-Esteem of Children from Low-Income Families. *Journal of People Plants and Environment, 16(5),* 261-266.
DOI : 10.11628/ksppe.2013.16.5.261

[29] K. C. Son, S. J. Um, O. J. Eun, H. J. Bae & W. S. Choi. (2002. March). Effects of horticultural therapy and art therapy on the changes of self-concept for the school maladjusted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Horticultural Science & Technology, Conference,* (pp. 44-44). : Seoul.

[30] M. S. Jung, J. H. Lee & Y. O. Jeong. (2009). Effects of group horticulture activity of herb on the improvement of peer relation and a class cohesion in the lower grades elementar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2(3),* 107-124.

[31] Y. O. Jung & J. H. Lee. (2013). The Effects of the Horticultural Activity on the Sociality and Friend Rel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26*(3), 41-58.

[32] S. J. Lee & S. H. Byun. (2015). Effects of horticultural activity programs on self-esteem and school life adaption of juvenile. *Journal of People Plants and Environment, 18(6),* 509-513.
DOI : 10.11628/ksppe.2015.18.6.509

[33] Y. S. Kim. (2010). *Effect of horticultural therapy based on soultion-focused brief counseling on the improvement of school life adjustment of teenager in broken family.* Konkuk University, master's thesis. Seoul.

하 윤 주(Yun-Ju Ha) [정회원]

· 2005년 8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11년 1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2년 3월 : 전남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3년 9월 ~ 현재 : 호남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융합, 기초간호, 성인간호, 보건의료법
· E-Mail : hyj7@honam.ar.kr

김 은 아(Eun-A Kim) [정회원]

· 2011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1년 3월 : 전남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교육, 기초간호, 지역사회간호
· E-Mail : eakim@dsu.ac.kr